

Aylin Elci, 대외홍보담당, 세계경제포럼(WEF), +41 75 404 10 95, aelc@weforum.org

장기적 리스크에 대한 전 세계적 각성 필요

- 2020 년 전 세계는 팬데믹과 같이 장기적 리스크를 간과함에 따라 재앙적 여파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당면 리스크들을 금일 발표된 '2021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공개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적 분열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3-5 년 후에는 경제가 위협받고, 5-10 년 후에는 지정학적 안전성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
- 환경 문제는 여전히 향후 10 년 동안 발생 가능성 및 파급력 측면에서 모두 가장 클 것으로 예상
- 보다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전문([here](#)), 글로벌 리스크 이니셔티브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here](#))를 확인하기 바라며, #risks21 를 태그하여 대화 참여 가능

2021 년 1 월 19 일, 스위스 제네바 – 지난 15 년 동안, 세계경제포럼은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발간하여 전 세계를 향해 팬데믹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그리고, 2020 년 우리는 장기적 리스크를 간과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몸소 겪었다. COVID-19 팬데믹은 수백만 명의 인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고착화된 보건, 경제 그리고 디지털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코로나 극복 이후 회복의 훈풍이 불어 새롭고 더욱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는 있겠으나, 수십억 명의 간병인, 노동자 및 학생, 그리고 팬데믹 이전부터 취약계층이었던 사회적 약자는 이러한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칠 수 있다. 오늘 공개되는 2021 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면 환경 악화와 같은 장기적 도전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필요한 글로벌 협력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한다.

기술에 대한 접근성 및 디지털 역량의 경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사회 결집력 역시 약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미 두 번째 글로벌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전 세계의 청년층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향후 10 년 동안 어떠한 기회도 누리지 못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COVID-19 로 회사의 재정상태, 디지털 역량 및 평판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다수의 회사 그리고 이들 회사의 직원들은 미래 시장에서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격차 발생 시 사회가 분열될 수 있다. 한편,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위태로운 상황이 점쳐지고 있다. 만약 중진국들이 국제 관계에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회복세는 주춤하게 될 것이다.

환경은 향후 10 년 동안 발생 가능성 및 파급력 측면에서 여전히 가장 압도적인 리스크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균열, 불안정성 및 불안감은 지속적인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며 응답자들에게 각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게 될 시점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았고, 이렇게 수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각 리스크를 평가하였다. 이는 보고서 발간 이후 처음 시도한 방식이다. 명확하게 드러난 현재의 위협으로는 대부분 생명과 생계에 대한 염려였으며, 전염병, 고용위기, 디지털 불평등 및 청년층의 환멸감 등이 해당된다(현재부터 향후 2 년). 또한,

응답자들은 문제가 드러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자산버블 붕괴, IT 인프라 붕괴, 가격 불안정성 및 부채 위기 등과 같은 경제 그리고 기술 리스크의 연쇄적 반응을 중기적 글로벌 위험요인으로 꼽았다(향후 3 년에서 5 년). 마지막으로, 대량살상무기, 국가 붕괴, 생물다양성 손실 및 기술발전의 부작용과 같은 실체적 위험은 대부분 장기적 리스크로 분류되었다. (향후 5 년에서 10 년)

사디아 자히디(Saadia Zahidi) 세계경제포럼(WEF) 전무이사는, “2020 년, 글로벌 팬데믹 리스크는 이제 현실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를 통해 2006 년부터 강조했던 리스크이다. 물론 장기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정부,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려운 일임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눈을 돌린다고 해서 이와 같은 장기 위험요인 발생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님을 이번 위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정부, 산업계 및 사회가 이번 팬데믹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경제 및 사회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쇼크 상황에 대응하고 이로부터 집합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는 한편, 불평등 감소, 보건 증진 및 환경 보호 확대 등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세계경제포럼은 Davos Agenda 행사를 다음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글로벌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국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원칙, 정책 및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본 보고서는 COVID-19 대응 조치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글로벌 회복력을 증강하기 위한 교훈을 분석 프레임워크 정립, “리스크 챔피언” 양성, 명확하고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신뢰 구축,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 모색 등 4 가지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핵심 리스크에 대한 내용에 덧붙여 공통의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 산업계 및 국제사회가 수동적인 반응이 아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고사항도 함께 다루고 있다. 보고서 말미에는 발생가능성은 낮지만 파급력이 크다고 예상되는 9 개의 위험요인, 즉 지구 자기장 교란, 우발적 전쟁 및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의 부당 이용 등 “미지 영역의 프런티어 리스크(frontier risks)”에 대한 전문가의 선견(先見)을 정리하였다.

피터 가이거(Peter Giger) 취리히보험그룹(Zurich Insurance Group)의 그룹 CRO 는, “디지털 전환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2025 년까지 약 1 억 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디지털화가 진행되며 약 8,500 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성인이 6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존의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최대 리스크 요인은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기후 리스크에는 어떠한 백신도 효과가 없다. 그러므로, COVID-19 팬데믹 이후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가능성 의제에 초점을 맞추어 회복을 계획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캐롤리나 클린트(Carolina Klint) 마쉬(Marsh) 유럽 담당 리스크관리리더는, “COVID-19 가 야기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파급효과는 백신이 보급되고 한참이 지난 후에도 회사, 고객 그리고 동료 간 상호작용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터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급속한 디지털화로 인해 사이버 위험에 대한 노출이 늘어나고, 공급망의 와해로 사업 모델이 급격히 변화하고, 원격 근무로 전환되며 심각한 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모든 사업체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쇼크 상황에 대비하여 회복력을 증진하고자 한다면 각자 리스크 저감 전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형희 SK SUPEX 추구협의회 SV 위원회 위원장은, “2020 년에 발생한 이번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및 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스트레스 테스트와 마찬가지로였다.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쇼크에 대한 회복력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 국제 협력 및 더욱 더 강력한 사회적 결집을 필요로 한다. 또한, 2020 년 팬데믹 상황에서 디지털화가 더 빨리 이루어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잘 대처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회복력 구축의 관건은 연결성의 지속적 확대에 달려 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5G 와 인공지능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디지털 격차와 윤리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Global Risks Horizon



When do respondents forecast that the following issues will pose a critical risk to the world?



Source: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Report 2021

Global Risks Landscape 2021



Top Global Risks by Likelihood



Top Global Risks by Impact



■ Economic
 ■ Environmental
 ■ Geopolitical
 ■ Societal
 ■ Technological

Source: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Report 2021

편집자 참고사항

파트너사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Jason Groves, Director of Communications, International, Marsh & McLennan Companies, United Kingdom, +44 (0)20 7357 1455, jason.groves@marsh.com
- Pavel Osipyants, Senior Media Relations Manager, Zurich Insurance Group, Switzerland, +41 (0)44 625 20 13, pavel.osipyants@zurich.com
- Sam Ik Whang, Director, Media Relations Team, SK Group, South Korea, +82-2-2121-1636 samik.whang@sk.com

다보스 의제(Davos Agenda)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는 다보스 의제([Davos Agenda](#))에 앞서 발간합니다. 다보스 의제는 2021 년 우리에게 필요한 원칙, 정책 및 파트너십을 정립하기 위한 신뢰 구축에 매진하는 글로벌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일주일 동안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리더들이 혁신적이고 담대한 솔루션을 채택하여 지금의 팬데믹을 저지하고 향후 10 년 동안 견고한 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가 정상, CEO, 시민사회 리더, 전 세계 언론인은 약 100 개의 세션에 적극 참여하며 5 개의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취재진 등록은 다음의 링크로 부탁드립니다: [register here](#)

보고서 전문은 [Global Risks Report 2021](#)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isks21 를 태그하여 대화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은 다음의 링크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wef.ch/risks21

Davos Agenda Week 2021 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ef.ch/davosagenda

포럼 사진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hotos](#)

포럼 의제 원문과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된 의제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genda](#)), [French](#) | [Spanish](#) | [Mandarin](#) | [Japanese](#)

포럼의 [Strategic Intelligence Platform](#) 그리고 [Risk Transformation Maps](#) 는 각각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럼의 SNS 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Twitter via [@wef](#) [@davos](#) | [Instagram](#) | [LinkedIn](#) | [TikTok](#) | [Weibo](#) | [Podcasts](#)

포럼의 페이스북 계정은 다음의 링크로 팔로우 할 수 있습니다: [Facebook](#)

포럼 영상은 다음의 링크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videos](#)

포럼의 파급영향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mpact](#)

포럼 관련 소식은 다음의 링크로 가입 및 청취할 수 있습니다: [news releases](#) 그리고 [Podcasts](#)

세계경제포럼(WEF)은 더 나은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전념하는 국제 민간협력 기구입니다. 다보스 포럼은 글로벌, 지역 및 산업 차원의 의제를 정립하여 정치인, 산업계 그리고 사회 리더들이 한데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마련합니다. (www.weforum.org)

